

p. 4

이 책의 저자

그림 형제 (1785~1863, 1786~1859)

그림 형제는 독일 출생으로 형은 야코프(Jacob Grimm), 동생은 빌헬름(Wilhelm Grimm)이다. 그림 형제는 언어학 자료로 삼기 위해 독일에서 구전되던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그림동화(1812)>를 편찬했는데, 이 책으로 인해 그림 형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유로화가 도입되기 전, 1000마르크 짜리 독일 지폐에 그림 형제의 모습이 실려 있었을 정도이다. 형은 게르만 언어학의 창시자로 언어학에서 큰 업적을 남긴 반면, 전승동화 수집에 큰 영향을 미친 <그림동화>를 만드는 데는 동생 빌헬름의 역할이 컸다.

<그림동화>의 초판은 음울하고 잔혹해서 어린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증보판부터 내용이 순화되었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등의 현대판 동화들은 밝고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다. 그림 형제의 대표작 <럼펠스킨>, <백설공주>, <잠자는 미녀>, <라푼젤>, <신데렐라>, <헨젤과 그레텔>, <개구리 왕자>, <브레멘 음악대> 등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p. 5

헨젤과 그레텔

가난한 나무꾼의 아이들 헨젤과 그레텔은 계모의 미움을 받는다. 계모는 가난을 이유로 남매를 숲 속에 버리도록 남편을 설득하는데, 헨젤은 계모의 계획을 엿듣고 하얀 돌을 미리 준비해 둔다. 아버지를 따라 깊은 숲으로 들어가면서 돌을 떨어뜨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표시해 두는데... 이 이야기는 영화와 오페라로도 만들어져 지금까지 크게 사랑 받고 있다.

라푼젤

아이가 없는 한 부부가 마녀의 점원에서 초롱꽃을 몰래 따먹다 마녀에게 발각된다. 마녀는 그 별로 부부에게 태어난 아이를 데려가 버린다. 아이 이름을 라푼젤로 짓고, 열두 살이 되자 숲 속의 높은 성 꼭대기 방에 가두어 버린다. 생전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긴 금발머리를 가지고 있는 라푼젤은 근처를 지나던 왕자를 만나 탈출을 시도하는데...

<라푼젤>은 '라푼젤, 라푼젤, 머리를 내려다오.'라는 대사로 유명한데, 오늘날에는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인기를 끌고 있다.

헨젤과 그레텔

[제 1 장] 숲에서 길을 잃다

p.12-13 헨젤과 그레텔은 오누이었다. 그들은 숲 속 오두막 집에 살고 있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나무꾼이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난했다. 그의 첫 번째 아내는 여러 해 전에 죽었다. 그는 다시 결혼을 했다. 그의 두 번째 아내는 잔인하고 욕심이 많은 여자였다. 그녀는 헨젤과 그레텔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무꾼이 아이들을 숲 속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거기에 아이들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p.14-15 계모가 나무꾼에게 말했다. “우리가 저 애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누군가가 애들을 찾아낼 거예요.” 계모는 매일 밤 이렇게 말했다. 헨젤과 그레텔은 계모가 하는 말을 들었다. “걱정하지 마,” 헨젤은 그레텔에게 말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헨젤은 돌을 많이 모았다. 조그맣고 하얀색의 돌이었다. 나무꾼은 아이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내도 정말 사랑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말했다. 마침내, 나무꾼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p.16-17 나무꾼은 헨젤과 그레텔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그들은 숲 속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헨젤은 주머니에 돌을 넣어 두었다. 그는 하얀 돌을 떨어뜨렸다. 그는 조금 걸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돌을 떨어뜨렸다. 늦은 오후가 됐다. 나무꾼이 멈췄다.

“여기가 나무 베기 좋겠다.” 그는 나뭇가지를 자르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는 아이들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사라졌다.

p.18-19 그레텔은 무서웠다. “아빠가 없어졌어.”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곧 밤이 올 거야! 우린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잖아.” 헨젤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 “달이 곧 밝아올 거야. 하얀 돌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아이들은 자리를 잡고 앉았다. 머지않아 달이 떠올랐다. 부드러운 하얀 빛이 숲을 환하게 채웠다. 그들은 돌이 잘 보였다. 그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왔다.

p.20-21 아침이 되었다. 계모는 아이들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침대에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나무꾼에게 갔다. “바보 같으니라고!”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애들이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일 하나 제대로 못 해요?” 그녀는 화가 아주 많이 났다. 나무꾼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 각자에게 물을 조금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딱딱한 빵 한 조각을 주었다. 밤에 그녀는 다시 나무꾼에게 소리를 질렀다.

p.22-23 아침이 왔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갔다. 헨젤은 이번엔 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빵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다. 헨젤은 빵을 작은 조각으로 부숴서 그는

빵조각들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는 새들을 보지 못했다. 새들은 몹시 배가 고팠다. 새들은 빵을 몽땅 먹어 버렸다. 나무꾼이 멈췄다. 그는 나무를 패기 시작했다. 헨젤과 그레텔은 게임을 하며 놀았다.

p.24-25 한 시간이 지났다. 헨젤과 그레텔은 올려다보았다. 나무꾼은 보이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 헨젤은 말했다. “내가 빵부스러기를 땅에 떨어뜨렸어.” 하지만 그들은 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레텔이 울기 시작했다. “걱정할 필요 없어.” 헨젤은 그레텔을 달랬다. “아침에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숲은 온통 무서운 소리로 가득했다. 그들을 쳐다보는 눈이 많았다. 그들은 무서웠다.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섰다. 아이들은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걸었다. 하지만 집을 찾을 수 없었다. 헨젤과 그레텔은 둘 다 배가 고파왔다.

[제 2 장] 사탕으로 만든 집

p.28-29 그들은 갑자기 이상한 집을 발견했다. 헨젤은 집으로 걸어갔다. “우와, 이 집은 초콜릿으로 만들어졌어!” 헨젤이 말했다. 그레텔도 집 가까이 갔다. 그녀는 창문 옆이 하얀색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레텔은 그것을 떼어 냈다. 그리고 활아 먹어 보았다. “이건 페퍼민트다!” 그레텔이 소리쳤다. 아이들은 집에서 큰 조각을 떼어 냈다. 그것들은 전부 먹을 수 있었다. 여러 종류의 사탕이 있었다. 모두 맛이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행운이 믿기지 않았다.

p.30-31 갑자기 문이 열렸다. 못생긴 할머니가 나타났다. 아이들은 두려웠다. “가연어라!” 하고 여자는 말했다. “너희들 배가 고파 보이는데. 그 사탕은 건강에 좋지 않아. 안으로 들어오너라. 제대로 된 음식을 너희에게 줄게.” 그 할머니는 사악한 마녀였다. 마녀는 집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유인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가두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었다. 아이들은 살이 찼다. 그러면 마녀는 아이들을 잡아먹었다!

p.32-33 헨젤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 마녀는 헨젤을 우리에게 가뒀다. 마녀는 재빨리 우리를 잠갔다. 마녀는 그레텔의 팔을 잡았다. “넌 이제부터 내 하녀야.” 늙은 마녀가 웃었다. “네 오빠가 포동포동 살이 찰 때까지 잘 먹일 거야. 그리고 나면 네 오빠를 잡아먹을 테니까!” 그레텔은 소름이 짝 끼쳤다.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마녀는 힘도 세고 빨랐다.

p.34-35 마녀는 매일 헨젤에게 좋은 음식을 주었다. 음식을 많이 주기도 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헨젤에게 말했다. “우리 밖으로 손가락을 내놓거라.” 그레텔은 헨젤에게 닭뼈를 주었다. 마녀는 눈이 나뉘기 때문이다. 마녀는 제대로 보지를 못했다. 헨젤은 그 뼈를 내놓았다. 마녀가 그 뼈를 꼬집었다. 마녀는 그 뼈가 헨젤의 손가락이라고 생각했다. 뼈는 매일 똑같았다. 얇고 딱딱했다.

p.36-37 여러 날이 지나갔다. 마녀는 화가 났다. “대체 뭐가 문제야?” 그녀는 소리질렀다. “너에게 닭도 먹이고! 감자도 먹이는데! 그런데 넌 여전히 말라깽이잖아!” 마녀는 몹시 배가 고팠다. “어쨌든 널 잡아먹어야겠다.” 마녀는 말했다. “그레텔, 오븐을 준비해!” 그레텔은 장작을 오븐에 넣었다. 엄청 큰 오븐이었다. 아주 많은 장작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다. 하지만 문이 작았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웠다. 그레텔은 오븐에 불을 때기 시작했다.

p.38-39 늙은 마녀는 그레텔도 요리하려고 했다. “오븐에 들어가봐.” 마녀가 말했다. “안이 뜨거운지 보렴.” “문이 너무 작아요,” 그레텔이 대답했다.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멍청한 애를 봤나! 이렇게 쉬운 일을.” 늙은 마녀는 소리쳤다. “이렇게 오븐 안으로 들어가라고.” 마녀는 자신의 다리를 오븐에 넣었다. 그녀는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레텔은 마녀를 아주 세게 밀었다. 마녀는 오븐 안으로 떨어졌다. 그레텔은 재빨리 문을 닫았다. 마녀가 죽었다.

p.40-41 그레텔은 헨젤이 갇혀 있던 우리를 열어 주었다. 두 남매는 함께 마녀의 집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알을 찾았다. 그것은 금과 보석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들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마녀의 집을 떠났다. 마침내, 그들은 집을 찾았다. 나무꾼은 혼자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보고 정말 행복했다. “너희 새엄마가 돌아가셨단다,” 나무꾼은 말했다. “열이 펄펄 났었어.” 나무꾼은 약속했다. 그는 절대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라퐁젤

[제 1 장] 마법의 정원

p.46-47 한 아름다운 마녀에게 정원이 있었다. 그 정원은 높은 담 뒤에 있었다. 수많은 아름다운 식물들이 그곳에서 자랐다. 한 남편과 아내가 정원과 가까운 곳에 살았다. 어느 날, 아내가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수많은 초롱꽃을 보았다. 초롱꽃의 잎은 좋은 먹을 거리였다. 아내는 갑자기 강한 식욕이 느껴졌다. “저 꽃들을 먹어야겠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다. “초롱꽃을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남편은 겁이 났다.

p.48-49 남편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정원에는 문이 있었다. 남편은 문을 기어올라 넘어갔다. 그는 덩굴 뒤에 숨었다. 초롱꽃까지는 그다지 멀지 않았다. 그는 초롱꽃을 두 뿌리 가져갔다. 아내는 기뻐했다. 그녀는 특제 샐러드를 만들었다. 그녀는 샐러드를 전부 다 먹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가 더 원했다. 남편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그는 아내가 많이 아프다고 여겼다.

p.50-51 그날 밤, 남편은 다시 문을 넘었다. 그는 초롱꽃 가까이 갔다. 갑자기 마녀가 그 앞에 서 있었다. “어떻게 감히 내 정원에 들어왔느냐!” 남자는 죽게 될까 봐 두려웠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아내를 위해 초롱꽃이 필요해요. 아내가 죽을지도 몰라서요.” 마녀는 화가 누그러졌다. “꽃을 가져가도 좋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해. 너의 첫 아이를 데려가겠다.” 남편은 무서웠다.

p.52-53 여러 해가 흘렀다. 부부에게 여자 아기가 태어났다. 마녀가 그 날 나타났다. “이제 네가 대가를 치러야겠구나.” 그녀가 말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겠다.” 아이의 부모는 두려웠다. 그들은 싸울 수도 없었다. 마녀는 아기를 데려갔다. 마녀는 아이에게 라퐁젤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라푼젤이 자랐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아이였다. 머리는 금발이었다. 마녀는 라푼젤의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머리가 아주 많이 길었다.

p.54-55 몇 년이 지났다. 라푼젤의 생일이었다. 그녀는 열두 살이 되었다.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마녀가 말했다. 그녀는 라푼젤을 숲으로 데려갔다. 주변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탑 하나가 있었다. 탑에는 문이 없었다. 계단도 없었다. 꼭대기에 방 하나만 있었다. 창문도 딱 하나 있었다. 벽에는 고리가 하나 있었다. 밧줄이 고리에 묶여 있었다.

p.56-57 라푼젤은 밧줄을 타고 올라갔다. 마녀가 따라갔다. “여기가 네가 살 곳이다,” 마녀가 말했다. “네가 필요한 것은 다 있다.” 마녀는 떠나 버렸다. 이제 라푼젤은 떠날 수 없었다! 마녀는 라푼젤을 자주 찾아갔다. 그녀는 창문 아래 서 있었다.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를 내려다오.” 라푼젤은 머리가 아주 길었다. 그녀는 머리를 아래로 내려뜨렸다. 마녀가 올라왔다.

[제 2 장] 왕자님

p.60-61 어느 날, 왕자가 말을 타고 가고 있었다. 그는 어떤 여인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바로 라푼젤이었다. 그녀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웠다. 왕자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탑 하나가 보였다. 하지만 왕자는 당황했다. 문도 없었다. 사다리도 없었다.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매일 그는 다시 그곳으로 갔다.

p.62-63 어느 날 왕자는 마녀를 보았다. 그녀가 창문 아래 서 있었다. “라푼젤, 라푼젤, 머리를 내려다오.” 왕자가 창문을 쳐다보았다. 왕자는 라푼젤을 보았다. 그는 바로 사랑에 빠졌다. 몇 시간이 지났다. 마녀는 떠났다. 왕자는 창문 아래 섰다. “라푼젤, 라푼젤, 머리를 내려다오.” 라푼젤은 깜짝 놀랐다. 목소리가 이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머리를 내려주었다. 왕자는 위로 올라갔다. 라푼젤은 겁이 났다.

p.64-65 왕자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그녀가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라푼젤은 안심했다. 왕자는 다정했다. 그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왕자가 잘생겼다고 생각했다. 왕자는 라푼젤에게 그와 결혼해 달라고 했다. 그녀는 그의 공주가 될 것이다. 왕자는 라푼젤을 궁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들은 행복할 것이다. 라푼젤은 결혼을 허락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라푼젤이 자기 머리를 타고 내려갈 수는 없는 것이었다!

p.66-67 왕자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매일 밤 왕자는 라푼젤을 찾아갈 것이다. 그는 비단을 좀 가져갈 것이다. 라푼젤은 비단 사다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 달 동안 왕자는 라푼젤을 찾아갔다. 그는 그녀에게 비단을 가져갔다. 라푼젤은 매일 사다리를 만들었다. 사다리가 점점 더 길어졌다. 어느 날, 마녀가 비단을 발견했다. “이게 뭐냐?” 마녀가 물었다.

[제 3 장] 성난 마녀

p.70-71 라푼젤은 생각하지 않고 말했다. “나의 왕자님이 저에게 비단을 줘요. 저는 그걸로 사다리를 만들고 있어요. 곧 왕자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왕자님이 곧 올 거예요. 그는 밤에 저를 찾아오거든요.” 마녀는 화가 났다. “넌 정말 나쁜 아이구나!” 마녀가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네가 감히! 세상은 널 건드릴 수 없어. 네가 모든 걸 망쳤어!” 그녀는 라푼젤의 머리를 잡았다. 한 번에 잘랐다.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잘려 나갔다!

p.72-73 마녀는 라푼젤을 멀리 데려갔다. 마녀는 사막에 오두막집이 있었다. 마녀는 라푼젤을 그곳에 두었다. 그날 밤, 왕자가 찾아왔다. “라푼젤, 라푼젤, 머리를 내려 주오!” 마녀는 라푼젤의 머리를 아래로 내렸다. 왕자가 올라왔다. 그는 놀랐다! “라푼젤은 어디에 있느냐?” “하하하!” 마녀는 크게 웃었다. “라푼젤을 아주 멀리 보내 버렸다! 너는 두 번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할 거다!”

p.74-75 왕자는 충격에 휩싸였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라푼젤을 잃을 순 없었다! 왕자는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창문에서 뛰어 내렸다. 하지만 죽지 않았다. 그는 덩불 위에 떨어졌다. 눈이 나뭇가지에 걸렸다. 그는 눈이 멀었다. 왕자는 숲을 헤매 다녔다. 그는 라푼젤 이름을 외쳤다.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p.76-77 몇 년이 흘렀다. 왕자는 사막으로 들어섰다. 그때,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귀에 익은 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노래를 하고 있었다. “라푼젤이다!” 그는 생각했다. “나의 공주님! 당신은 어디에 있는 거요?” 그가 그녀에게 소리쳤다. 라푼젤은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도 그의 목소리를 알아차렸다. “나의 왕자님! 제가 갈게요!” 라푼젤은 그를 찾아냈다. 그녀의 강인한 왕자님은 눈이 멀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너무 불쌍했다.

p.78-79 라푼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왕자의 눈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눈에 닿았다. 그녀의 눈물은 왕자의 눈을 낫게 했다. 왕자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왕자의 성으로 돌아갔다. 모두들 신이 났다. 그들의 왕자가 돌아온 것이다. 왕자는 아름다운 신부도 데리고 왔다. 그들의 결혼식은 성대했다. 몇 년 후, 왕자는 왕이 되었다. 라푼젤은 왕비가 되었다. 왕국은 평화로웠다.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